

# 포장디자인의 세계화는 한국적인 것으로

지기구조에서 가장 많은 고민

윤석영/세종대학교 부설 산업디자인 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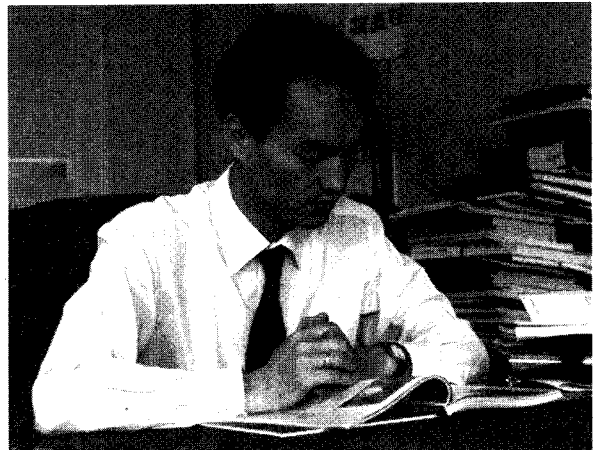
**“이번** 등산장비용 포장디자인은 작년 12월부터 선배와 함께 준비하여 출품하게 됐습니다. 얼마전 축협 건을 마무리 한 후 지금은 쉬면서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통상산업부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주최한 제 3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환경을 고려한 수출용 등산장비 포장디자인’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윤석영씨를 만났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출품하게 된 지난 5개월의 기간은 윤석영씨를 산악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많은 시간을 산과 관련된 테마와 생활했다. 선배와 이번 전시회에 무엇을 출품할까라는 테마 선정에 있어 다방면으로 시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결과 아직도 우리나라의 상품에 있어 포장디자인은 외국의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 등산장비가 눈에 띄더군요”라며 “국산 등산장비는 포장의 개념이 없을 정도로 포장되어 날개로 판매되고 있어 등산장비 포장의 낙후성을 개선하자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등산인이라면 환경측면에도 관계되어 있고, 세계적 추이도 환경문제에 흐름이 두고 있어 환경과 포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적 규제(환경분야)와 그린을 고려하고 재생쪽에도 신경을 써 여러 고민 끝에 등산장비의 포장재질을 무공해와 재생이 용이하고 다루기 쉬운 골판지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기구조와 완충재의 연구였습니다. 인쇄의 색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지기구조는 무엇인가, 또한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강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많은 시간적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소비자의 시각이 화려함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단순하면서도 의미성이 내포되어지는 포장디자인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파악하여 색도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 제품을 재생골판지로 사용하여 원가절감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최소한의 지기사용으로 최대의 완충역할을 했습니다. 포장의 구성에 있어 날개포장을 하느냐, 하나로 묶어 주느냐의 문제는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자는 목적하에 B.I개념을 도입하여 제품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의 경우 한번에 조립하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환경의 시각적인 면에서도 환경심볼마크를 제작하여 전제품에 적용함으로써 환경캠



▲ 세종대학교부설 산업디자인 연구소 연구원 윤석영씨

페인 운동의 효과를 냈습니다.”

세종대 부설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고 대학원에 서는 ‘포장’을 공부하고 있는 윤석영씨는 93년 KDC전 시각부분 동상수상(포장부문)과 94년 KDC전 동상수상, 제29회 대한민국산업전람회에서 서울경제신문사 사장상수상, 그리고 이번 제30회 대한민국산업전람회 국무총리상을 받을만큼 포장디자인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지금도 시간적 여유는 종이로 무언가를 오리고 붙이는 일에 일조를 한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나는 기자의 물음에 “요즘 전반적인 포장디자인의 흐름은 모방차원에서 우리의 것을 찾자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겠지요. 세계화의 의미는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것을 찾으며 고안하고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이제는 결혼을 준비해야겠습니다”라며 웃음을 건네는 윤석영씨.

결혼을 늦게까지 못한 이유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을 몰두하다보니 여기까지 왔고, 두가지를 한꺼번에 이루려는 것은 욕심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윤석영씨의 모습에서 일정정도 공감을 했다. ☞

〈변준섭기자〉